

# 삼성, 5년간 반도체·바이오 등에 450조 투자·8만명 신규 채용

### 총 투자액 중 360조 국내 투자 핵심사업 중심으로 청년 고용 확대

삼성이 혁신 성장을 위해 국내외 대규모 미래 먹거리 육성 투자 등에 나선다.

24일 삼성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미래 준비를 선언하며 향후 5년간 450조원(국내 360조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5년동안을 비교했을 때 120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국내 투자는 110조원 늘어났다.

45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삼성은 2대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IT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바이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



삼성이 대규모 미래 먹거리 육성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특히 삼성의 핵심사업 및 신성장 IT는 기업과 산업 생태계가 상호작용을 통해 막대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이 인식, 전략산업화에 나선 상태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美·中의 견제와 추격이 거세지고 있고 팹리스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는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이다. 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 안보 산업으로 변모했으나 소수 선진국과 대형 제약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에 삼성의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질 2대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에는 반도체, 바이오가 꼽혔으며 삼성은 반도체 부문에서 선제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역시 공격적인 투자로 제2 반도체 신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장 IT 부문에는 AI/차세대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 증대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기대된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인재 육성에 삼성은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삼성은 청년층의 기회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재 채용 확대 및 미래세대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은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107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SSAFY·드림클래스 등을 통해 빠른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외에도 삼성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타이틀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삼성은 스마트공장 지원 고도화, 협력회사 상생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혁신 DNA를 전파해 상생 협력을 중점 추진한다고 전했다.

방기열 기자

## ‘원자재값 폭등’ 민간 건설현장 타격... LH는 ‘선방 중’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국 곳곳 민간 건설 현장 2주 넘게 섰다운 이어져 LH 경기지역 건설 현장 ‘레미콘 작업 등 하루·이틀 지연에 불과’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공공 주택건설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타 현장보다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는 원자재값이 큰 폭으로 올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 지연 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후 전 세계 무역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류난, 원자재 가격 폭등, 주요 물품 수급 차질 등 생산과 교역 전반의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로 즉각 타격을 입은 건설업계는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레미콘운송노조 제주지부와 도내 레미콘 업체로 구성된 조합은 섰다운을 시작한 5주만인 오늘 현장을 재개했다.

부산과 경남 지역 레미콘 노조도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사측에 요구했고, 지난 9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던 중 15일 만에 극적 타결해 현장 정상화에 들어갔다.

특히 민간보다 단가가 낮은 LH도 단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LH가 시공 중인 일부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 자재가 부족하거나 공사 단가가 맞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LH의 경우 공공사업이라는 강점으로 지연 기간이 짧거나 민간 건설 현장보다 타격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LH경기지역본부는 “LH는 민간보다 단가가 낮은 탓에 레미콘 작업 등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지연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불과하며, 그 이상 지연된 상황은 아직 지역 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가 급등 발(發)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기업경영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 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조사 결과 6월 전망치가 96.3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달 전망치로, 2020년 12월~2021년 2월(98.9, 91.9, 96.6) 이후 16개월 만에 3개월 연속 100 이하에 그쳤다.

BSI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풀린다.

전경련은 경기전망 악화의 한 원인으로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과 주요국의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안을 지목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은 물가 급등,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건비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세 부담 완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후진적인 노동시장을 개혁해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만 기자

##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중기중앙회 첫 방문

###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인 주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 해소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한도 허용,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 및 관련 정부 재정지원 확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및 구분적용 도입, 외국인력 고용한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차기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를 1순위로 꼽았다”라며 “중소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주52시간제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본부장, 중앙연구원장, 사무처장을 역임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지만 기자

## 농협, ‘드문모심기 농작업대행’ 시연회 열어

### 농가소득 높이는 신농법 보급 확대

농협(회장 이성희)은 24일 경기도 이천 울면 농협 육묘장에서 ‘드문모심기 농작업대행 시연회’를 개최하고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신농법 보급에 적극 나섰다.

이날 시연행사에서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관내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자율작업 이앙기를 활용한 드문모심기와 드론을 활용한 방제 농법을 선보였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농가에서 이앙기로 모를 낼 때 보통 평당 모 이삭을 80주 정도 심는 것에 비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이용할 경우 약 30주 감소하는 효과와 함께 육묘상자에 기존의 두 배가량 범사를 심어 파종밀도를 높일 수 있어 ha당 필요한 육묘상자수가 240개에서 80개로 3분의 1로 줄고 육묘와 이앙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지만 기자

## 중기중앙회, 제16기 中企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개최

**경영역량 강화-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3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제1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IZ AMP는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창의적인 사람과 조직을 키우는 존경받는 리더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로 지난해 기준 약 9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병천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16기 신입원우와 선배동문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동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KBIZ AMP 제16기 과정은 입학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정규과정 및 워크숍, KBIZ AMP 플러스 조찬특강, 해외연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규강좌 및 워크숍은 CEO리더십, 경영트렌드, 디지털·ESG, 기업경영·컬처, 행복·힐링 등 5개 모듈로 진행되며 16기 입학식 뿐만 아니라 기존 KBIZ AMP 졸업생들도 참여하는 ‘KBIZ AMP 플러스’ 조찬특강을 정규기간 중 개최해 지속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원우들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베트남사무소와 연계한 해외워크숍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만 기자

## 도 농기원,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협의회’ 진행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4일 농업인 학습단체(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관계자 등과 함께 ‘도·시·군 인력 육성 담당자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년 농업인 육성 등 각 학

습단체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학생 4-H 회원 농심 배양 프로젝트’와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 청년 농업인 4-H 회원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4-H 경진대회와 농촌 민속문화 경연대회,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발전 방향 공유 등이다.

차명호 평택대학교 교수가 ‘공감하며 소통하는 레시피(recipe)’라는 주제로 ‘잡 만남’ 대화를 위한 자기 탐색과 공감하는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했다. 이지만 기자

### ▶▶ 1면에서 계속

여기에 한화큐셀은 ‘한화모티브(Hanwha Motiev)’라는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한화모티브는 한화 계열사 건물 주차장 및 상업용 빌딩 주차장을 시작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고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충전사업 진출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실과 바늘같은 존재’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고 풀이했다.

이어 “다수의 기업이 사업을 시작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류 시장처럼 기업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소비자는 저렴한 충전소를 찾아가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200~300만대 수준에 올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